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동성애와 한국교회 성경: 마태복음 8장 5-13절
 (Tag:동성애,한국교회,백부장,하인,신약성경,마태복음)

5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와 간구하여

6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니이다

7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8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
 다

9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
 이다

10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
 하였노라

11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 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게 되리라

13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마8:5-13)

Mark Tyler Connoley와 Jeff Miner의 책 <The Children Are Free: Reexamining the Biblical Evidence on Same-Sex Relationships>에 나
 오는 백부장 이야기 해석이 요즘 동성애 찬성론자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한일장신대학교 신학부 신약학 박영호 교수의 글을 참고함)

본문의 ‘하인’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의 ‘파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1. 아들 혹은 소년 2. 노예 3. 동성 애인, 이렇게 세 가지 뜻으로 쓰인다. 누가복음에는 ‘엔티모스 둘로스’(사랑하는 종)라고 되어 있으므로 노예일 수밖에 없다. 각별한 사랑을 받았고 ‘파이스’라 불리고 있으니 (2) 보통 노예(ordinary slave)는 아니고 각별한 노예일 것이다. 그러니 (3) 동성 애인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미국의 노예제도처럼 획일적은 아니었다.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지위와 재산을 소유한 자들도 있었다. 또 여성이 노예일 경우에는 주인의 첩으로 대우 해 주어야 했다. 성경에는 그런 경우 그 여자 노예의 인권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고 있다.

그런 여자노예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리고 주인이 그 아들을 끄찍이 사랑하면? 그가 곧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하는 하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동성애자를 용인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 주님은 그가 동성애자여서 고쳐 주신게 아니라, 병에 걸려 있어서 고쳐 주셨을 뿐이다.

그간 동성애자들은 집요하게 자신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 배경에는 기독교인들의 도덕적 괴롭힘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참고도서 소개; 동성애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 길원평의 5인 지음. 도서출판 라온누리.2014.11

저자 : 길원평; 서울대 자연대학 물리학과졸, 미 캘리포니아 주립대 박사,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도명술;건대 축산과 졸 한동대 생명과학부 교수

이명진;경희대 축산대학졸, 한동대 생명과학부 교수

이세일;경북대 의과대학 졸, 다니엘종합병원 의료원장.

임완기; 서울대 체육교육과 졸. 호서대 생활체육연수원 원장
정병갑; 고려대 졸, 한국창조과학회 부회장>

아무튼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성적 지향이 유전적이다, 호르몬의 영향이다. 그러므로 소수의 인권을 보장해 달라. 에이즈의 확산도 사실은 동성애자들 때문만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였다.(최근의 에이즈 확산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권 향상으로 에이즈가 이성애자들에게 까지 확산되었음. 그러나 동성애자들 중에는 감염율이 여전히 높다.)

그들의 연구논문도 동성애를 합법화 하는데 기여 하였다. 대부분의 동성애 관련 논문들은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10여년이 지나면서 그런 논문들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

그러나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회적 인식은 크게 바뀌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는 선천적이며, 유전적이며, 호르몬 이상이며, 동성애 성향은 자기들의 의지와는 무관하며, 그래서 이들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그 논문을 반박하고 진실을 밝히는 논문들은 오히려 소개되지도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마치 진화론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말해서 안티 기독교적 성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1. 동성애는 유전인가?

-유전이라면 그것은 유전결함, 즉 질병일 것인데 다른 유전결함으로 인한 질병과 비교해 보았을 때 현저하게 그 수가 많다.

-만약 동성애가 유전이라 하더라도, 지금의 숫자로는 유전학적으로 동성애는 얼마 지나지 않아 희귀병이 될 뿐이다.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뜻. 그러나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유전이 아니라는 증거.

2. 동성애는 행동양식에 관한 것(신체적 질병이 아님.)

-행동 양식의 경우 대부분의 유전자는 유전인자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만 특화될 수 있는데, 동성애 key 유전인자가 없다. 추론된 유전인자가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부인되고 있다.

-동성애 쌍둥이 연구도 처음에는 과장되게 소개 되었지만, 정밀하게 조사해 본 결과 큰 차이가 없었다.

3. 동성애는 태아기의 성 호르몬의 영향 때문이다.

-한때 갖가지 논문들이 발표되어 그럴듯하게 소개 되었지만, 지금은 모두 정밀 연구 결과 근거 없음으로 결론 지어짐. 그러나 한국에는 초기의 논문만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실정.

-설령 태아기때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었다라도 그것이 성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근거는 없음. 오히려 성기 기형을 초래할 정도의 극심한 호르몬 부작용을 겪었던 사람들에게서도 대다수는 동성애 경향이 발견되지 않음.

4. 동성애 성향의 두뇌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 추론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역시 근거 없음으로 결론이 남.

-기타 형효과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형 효과가 없는 동성애 성향자가 오히려 더 많다. 그런데 하는 행동패턴은 똑같다.

5. 의학적으로는 동성애를 어떻게 보는가?

19세기에는 정신질환의 하나로 보았음. 변하지 않고 악화된다고 봄.

20세기에 들어서서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이론에 따라 보다 설득력있는 이론들이 제시되기 시작함.

(정신성적 발달의 지체로 명명. 원인으로서는 거세 공포, 모성의 압도성에 대한 공포, 남근 선망 해결의 실패, 남성의 경우 어머니와의 과

도한 밀착, 아버지의 부재, 부모에 의한 남성성 발달의 억제, 성장기 동안 자기에 단계로의 퇴행, 형제 자매와의 경쟁에서의 패배 등)

21세기 (현재)는 정신분석학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들이 연구 제시됨.

-부모의 잘못된 성 역할 모델(유년 시절의 신체적 성적 학대)

- 유년기의 불안한 성 정체성(정서적 환경, 주변의 시선, 발육 부진, 똥똥함, 왕따 등)

-성격, 심리적 경향, 반대의 성에 가까운 목소리, 외모, 체형 등.

-기숙사, 교도소, 군대 등에서의 우연한 경험.

-동성애를 미화하는 문화 매체등으로 인한 호기심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회풍토

-동성애에 대한 유전적 요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결코 동성애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는 없으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전적 요인으로는 예술적 성향, 비정상적인 신체 모습, 선천적 성기형, 비만(특히 여성), 내성적 성격(남성), 운동능력 부족(남성), 탁월한 운동능력(여성), 매력적이지 않는 외모(여성))

*그러나 조사결과 오히려 환경적 요인이 더 크다고 보고되고 있음.

-입양, 우울증에서 벗어나려는 방법의 하나로, 사랑의 실패, 왕따, 매력적인 동성과의 우연한 대면 기회, 이혼, 상상, 매력적인 동성애에 대한 부러움, 힘의 과시, 패션, 거절감, 집착, 매력적인 동성애 문화, 동성애 포르노, 습관, 자유분방한 사회적 분위기, 결혼에 대한 두려움(여성), 이성과의 관계 미숙, 성 정체성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인 말, 소극성, 권위적인 환경, 반항심, 쾌락추구 등.

*영적인 영향도 있음.

*환경 경험이 두뇌에 미치는 영향이 큼. 인간의 두뇌는 학습과 경험

을 통해서 발달하거나 퇴화됨.

*사람은 의지적 존재. 스스로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결정함.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의지가 약하며, 자꾸 변명을 늘어놓음.(대부분의 논문들이 그런 경향을 보임. 선천적이다, 유전적이다, 성 호르몬 때문이다. 나의 결단력으로 동성애자가 되었다고 커밍아웃 하지 않고 나약한 호소에 의존함. 동정심 유발.) 동성애 중독성에서 벗어나지 못함.

*그러나 의지가 약한 반면 감성은 풍성하고, 예술성이나, 섬세함, 뛰어난 패션 감각, 쾌락 탐닉성 등은 강하므로 장단점이 있음.

*서구나 미국에서는 실패 했지만 한국은 대처할 수 있음.

-아직은 크게 큰 수가 아님.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조심해야 함.

(정치적 이유;북한은 남한의 교회를 미워하고 동성애자들도 교회를 미워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음. -사실 한국에서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임.)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역차별의 위험성이 크므로 결코 물러설 수 없음. 동성애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금지됨.

-에이즈로 인한 무료 치료 비용이 큼.

결론

-차별이나, 정죄는 핵심을 벗어나게 함.

-정치적으로 불리해짐.

-적극적인 연구, 홍보, 도움의 손길, 정치적 대정부 투쟁이 중요함.

-동성애자들을 향해 소리치기 보다는 정치인들에게 소리쳐야 함.

(정확한 근거와 자료, 통계를 가지고)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